

01 교회소식

감사와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전자책으로 보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국어 신앙 서적과 간증 이 넘친 해외 지교회 연합 수련회 등 국내외 뉴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선과 사랑으로 마음 가득 채워야 한다.

03 기획특집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는 불세례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세례는 물론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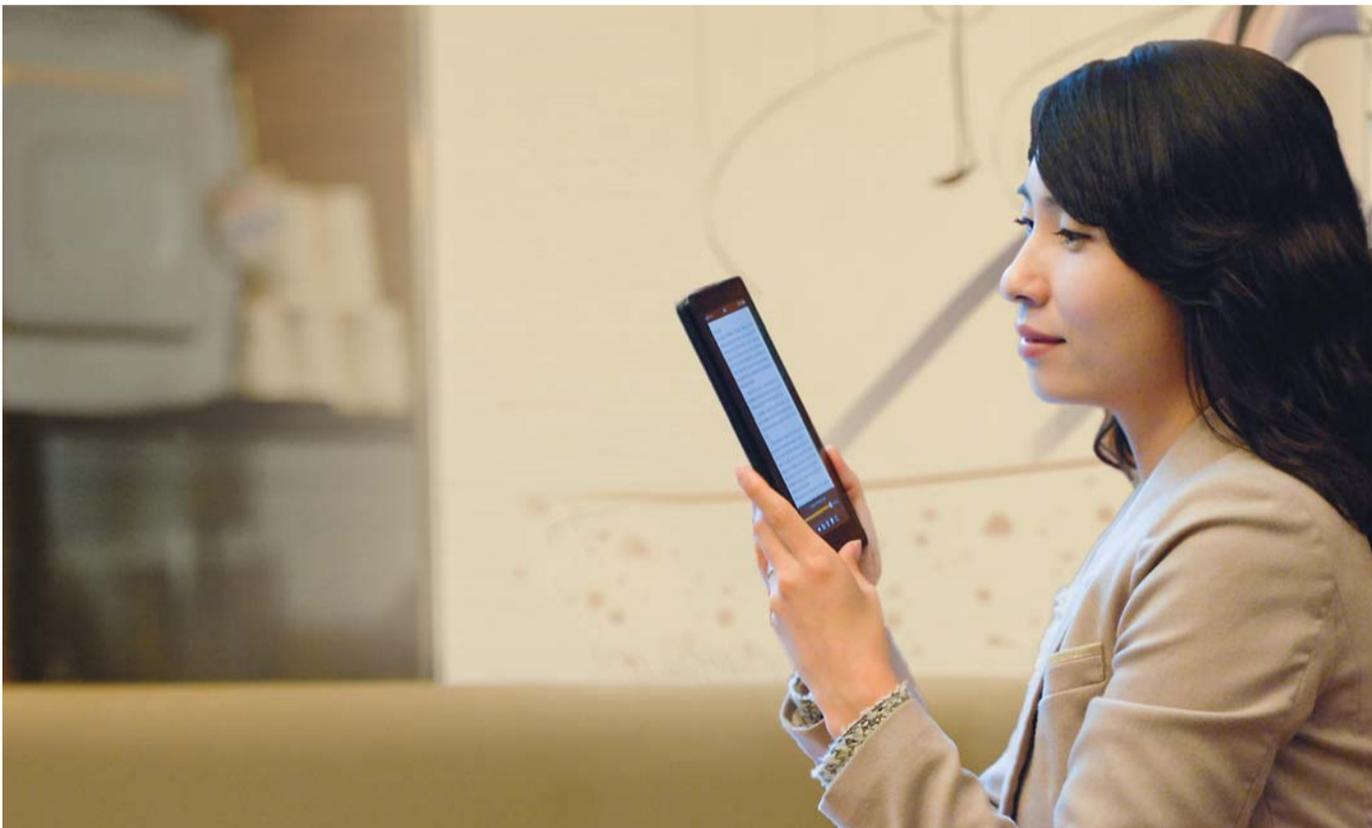
주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방황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만화애니메이션 달란트로 주께 헌신하는 김동호 형제의 행복한 간증.

만민뉴스

제557호 2012년 11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 독자를 위한 이재록 목사 다국어 전자책 아마존과 iBookstore 등 전자책 보급망 확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전자책은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iBookstore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으며, 전자책 단말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손쉽게 읽을 수 있다. 한 독자가 37개 언어로 발간된 '십자가의 도' 영문판을 전자책으로 읽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 등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책을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전자책(e-book)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책은 휴대가 간편하고 종이책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다운로드해 바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

며, 미국 전자책시장에서도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성공으로 급격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 서적을 전자책으로 꾸준히 발간해 디지털 문서선교의 장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한국어 저서 81권과 44개 언어 201종의 다국어 신앙 서적 가운데 현재 36개 언어로 218종이 전자책으로 발간됐다.

한국어판 전자책은 교보문고, 인터파크, iBookstore,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리브로,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다국어판 전자책은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com)과 iBookstore, 교보문고(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7개 언어 60종이, iBookstore에서는 20개 언어 108종이 판매돼 주목을 끈다.

전자책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림북 관계자는 "아마존 킨들과 애플 iBookstore 등을 통해 전자책을 활발히 유통하고 있는데, 독자층의 반응이 좋다. 판매량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며 미국, 대만 등 해외 전자책 출판사들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를 위한 iBookstore가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과 뉴질랜드에 새롭게 오픈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어판, 포르투갈어판 전자책의 보급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림북은 더 많은 언어의 전자책을 제작, 보급해 전 세계 70억 영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교를 펼쳐나갈 것이다.



단신

네팔 13개 만민지교회 연합수련회 '영' 주제로 개최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네팔 13개 만민지교회 연합수련회가 이해전 목사(네팔만민선교센터)를 강사로 네팔 까브레 돌리켈 지역 산지바니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영'(spirit)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프로그램은 말씀 시간 외에 십자가 체험, 성령충만기도회, 성경 퀴즈대회, 찬양경연대회, 체육대회, 캠프 파이어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네팔 최동부 모령 지역에서 참석한 고 빈다폴교회의 폴 멀무 목사는 "지난 18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귀한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련회를 통해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교회에 돌아가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돌리켈 지역의 타쿨 카팔리 목사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며 감사해했다.

포토뉴스

찬양으로 주님 사랑 전해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가 '인천경찰기독교선교회 연합예배'(10월 25일)에서, 미래클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10월 19일)에서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6)

패와 불의가 만연하지요. 웬만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도 불의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홉 번째 속성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마음에 악은 모양도 품지 않는 것이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불미스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사는 친구를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괜히 뽐내는 것 같고 미운 마음이 들지요. ‘친구는 잘사는데 나는 이게 뭐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스칩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친구가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잘산다고 뽐내더니 고소하다.’며 즐거워한다면 이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악한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다면 적극적으로 불의를 기뻐한 것입니다.

2.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1)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잘못이라고 느끼는 불의는 행치 말아야 합니다. 가령,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고 남을 속이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쫓아나가는 것은 불의입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 또한 불의이지요.

또 양을 속여 팔거나 값싸고 질 나쁜 원료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의

한 재물을 얻으려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높은 공직에 있는데 절친한 친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큰돈을 버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적발되면 크게 처벌받을 일이지요. 이때 친구가 큰돈을 건네며 얼마 동안만 눈감아 달라고 사정합니다. 잘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사례를 하겠다고 하지요. 이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불의를 행치 않고 정도를 좇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19:7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던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카뿐만 아니라, 소돔 성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까지 되찾아 왔습니다. 소돔 왕은 고마운 마음에 되찾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사코 거절합니다(창 14:22-23). 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도 땅 주인이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요(창 23장). 이는 그가 정직해 불로소득이나 불의의 재물을 거저 얻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 외에는 바라지 않지요. 따라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죄가 다 불의입니다. 불의는 마음의 악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죄이며 죄 중에서도 특히 육

체의 일에 해당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악이 다름, 폭행, 사기, 살인 등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9-10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지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불의를 사랑해 멸망으로 간 사람 중에 아간이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2세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 강물의 흐름이 멎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지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물건에는 일절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임을 아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나온 물건을 보는 순간, 그만 욕심에 눈이 멀고 말았지요. 아름다운 외투와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을 보자 하나님 말씀도 여호수아의 당부도 잊은 채 은밀히 감춰 뒀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일로 아간의 불의가 드러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벧전 3:18). 이런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결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지요. 신속히 불의, 불법, 비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속한 선과 사랑,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상대 유익을 구하며 기쁨과 소망,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쉽게 변하지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영적인 사랑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호까지는 영적인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속성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의란 행위로 드러나는 불미스런 일들을 말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후진국일수록 부정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리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불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산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1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얻었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 능력이 주어져 자녀 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불세례에 관해 살펴봄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불세례는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며 당황한다. 그때에 스랍(Seraphim)의 하나가 단에서 숯을 취해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한다. 이것은 이사야가 불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됐다는 뜻이다.

로마서 10:10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으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요, 입술이 성결케 되면 마음도 성결케 되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자체를 뽑아버리는 일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불세례를 받아 죄의 근본 뿌리까지 태워버리고 성결을 이뤄야 항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때 가정, 일터, 사업터까지도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보호받아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원수 마귀 사단이 성령의 불에 접하면 그 능력을 상실해 마치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담이 있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며 도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도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죄성을 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불세례를 받아야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 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씻기는 것을 나타낸 외적 표현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 아들을 영접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물세례를 받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죄사함을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 죄성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 안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질병이 틈타거나 가정과 일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성령세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불세례를 받으면 질병은 물론 마음의 죄성까지도 태워 영육 간에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불세례를 사모해야 한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불세례를 받아 마음의 죄성을 태우고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강건해지고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불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온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불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회개기도를 통해 죄의 담을 헐고 성령 충만함은 물론, 더 나아가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성령의 불이 임해 모든 질병이 태워지고 죄악들이 벗어지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다.

또한 불세례는 하나님 능력의 차원이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며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의 향을 날마다 쌓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능력 곧 불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니 만사형통한 복도 임하게 된다. 따라서 성령세례를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1
November

주요 프로그램 안내!
Programming Guide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9-13
- 위로부터 난 지혜 1-4
- 천국 26-30
- 창세기 강해 39-43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2

GCN TV설교

- 이수진 목사의 '말복 1-3',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행실 7-8'
- GCN TV특강 '빈곤선 권사의 '일곱교회 3-7'
- 이미영 목사의 '자존심을 깨뜨리자'

찬양 프로그램
GCN파워프레임즈2 18,1-5

해외성회 시리즈

- 패루 연합대성회 1-1, 1-2
- 독일연합 대성회 '통합편'

GCN 특선명화

- 눈에 덮힌 진실
- 사도바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하루하루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제가 주님 은혜 속에 이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옵니다.

가난이 싫어 방황하던 학창시절

어릴 적, 저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저희 가족은 지하 월세 방을 전전하며 빗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지요. 가난이 끔찍하게 싫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만 돌던 저는 무던히도 부모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1997년 1월, 부모님을 따라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세상 쾌락을 좇아 살았지요. 삼수 끝에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에 입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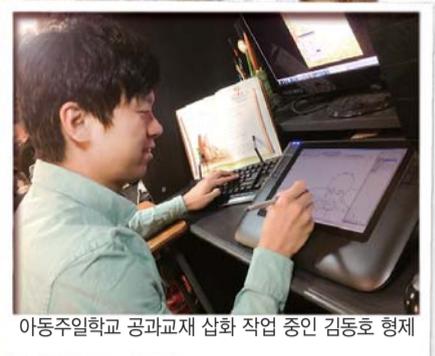
2006년 11월, 아버지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제 신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공부보다는 술, 담배를 즐기며 세상에 폭 빠져 살았고 군 입대 후에는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전역 무렵,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뤄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막연히 교회에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딱 반년만 내 마음대로 살자! 그 후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다!' 하며 장학금을 받고 어학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세웠지요. 그러나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된 새로운 삶

스스로 약속했던 반년이 끝나고 2010년 8월,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성령충만기도회 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의 터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감히 눈물 흘릴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수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그러나 민망함도 잡시, '미우나 고우나 나는 하



아동주일학교 공과교재 삽화 작업 중인 김동호 형제

◀ 어머니 정옥란 집사, 동생 김민호 형제(우)와 함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행복과 축복이 넘칩니다”

김동호 형제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4학년)

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토록 즐겨 하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됐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과연 결단하고 회개한 제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크리스찬신문에 연재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잠언강해를 위한 일러스트와 아동주일학교 공과교재의 삽화를 그려 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가정 형편상 컴퓨터가 없어서 작업이 불편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지요.

저는 더욱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당회장님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며 세상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졌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했고 기쁨이 밀려왔지요. 세상 즐거움을 취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2011년 6월경, 꿈에서 검정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검정색 잉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회장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뒤 이전에 사용하던 검정색 선을 모두 갈색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고, 실력도 부쩍 늘었지

요. 7월 말에는 교내 코믹마스터K 대회에서 수상해 상금도 받고 좋은 조건 속에 미술학원 강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어머니의 질병

특별히 올해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4년 전, 큰 수술을 하신 어머니는 종종 건강증 증세를 보이곤 했는데 올 초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월 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횡설수설 하시는 모습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건강증이 심한 어머니를 타박한 것이 떠올라 회개가 됐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기억상실 증세였습니다. 더욱이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재검진을 앞두고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았던가?' 마음에 걸리는 일마다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무 이상이 없기를 기도했지요.

어머니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 또한 교구장님과 가나안

선교회 총연합회장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지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 아무런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

사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당회장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아끼며 구제하셨는데...' 신앙의 철이 들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두 학기에는 장학금을, 금년 1학기에는 All A+ 성적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졸업 작품을 선정할 때에도 당회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당회장님께서 삼국지를 읽으며 신앙에 접목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졸업 작품을 삼국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얻었지요.

졸업 작품전을 마친 저는 좋은 조건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씻어 주시고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구미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여수만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무안만민교회
- 순천만민교회
- 전주만민교회
- 익산만민교회
- 군산만민교회
- 춘천만민교회
- 원주만민교회
- 속초만민교회
- 강릉만민교회
- 제주만민교회
- 북부지성전
- 안산지성전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